

[매경시평] 영어보다 창의성 교육이 먼저

외국 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인재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매우 낮다. 국내 우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낮은 평가를 받기는 매한가지다. 이는 언어 장벽이라는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외국 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이 인재의 역량을 지식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주입식 교육에 치우친 교육환경에서 자란 우리나라 인재들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계를 깨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발전한 원동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이었다. 높은 교육열과 경쟁으로 인재를 길러냈기에 이만큼이나 선진국들을 따라올 수 있었다. 그러나 뒤를 따라가는 처지에서는 기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도록 하는 현행 주입식 교육이 필요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선진국을 앞질러 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질은 타율에 의한 주입식 교육으로는 길러줄 수 없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올해 전국 30여 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가 그 주역이다. 서울대도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157 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한 바를 근거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제탐구세미나와 같은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기존 교과서 위주인 주입식 교육과 달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 교육이 자율성 없는 주입식 교육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결과 창의성 없는 인재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한두 해 묵은 이야기가 아니기에 자유전공학부의 등장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일부지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서울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중 59.6%가 각 전공학과 학문 내용과 전망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꼽았다. 학교 측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느낀다. 이들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기에 자유로운 선택 기회를 얻었으나, 전공을 결정하고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미래가 유동적인 데서 오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사실 대학 입학 이후로 전공 선택 시점을 미루는 형태인 자유전공학부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보다 일찍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고 이를 준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여러 대안이 있어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향후 자신들이 어떤 것에 대해 공부하게 될지 그 정체를 알고 전공을 선택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양한 전공과 [진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진로](#)지도 전문가가 각급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을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생의 비교적 전반부에 등장하면서도 그 비중이 매우 큰 전공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수학 선행학습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조기에 학생들의 자율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토론 수업과 [진로](#)탐구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100년 후 한국을 위해 대학을 비롯한 교육 전 영역에서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강진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과정 교수]

